

中國 動向

中國의 금년 상반기 GDP 실질증가율은 9.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中國 政府는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측과의

合資 貿易商社 설립을 최초로 인가하였다.

中國銀行과 中國企業들이 싱가포르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금년 상반기 臺灣의 對中投資額은 臺灣政府의 억제정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9% 감소하였다.

中國, 상반기 GDP 증가율 9.5% 기록

中國의 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GDP 실질증가율은 9.5%, 소비자물가상승률(前年同期比)은 4.1%를 기록했다. 작년에 중국경제는 軟着陸에 성공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크게 안정되어 성장률(9.7%)과 물가상승률(CPI 8.3%)이 수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低인플레이션에 보다 安定的인 高成長을 이룩함으로써 安定成長段階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93년 하반기 이래 緊縮政策을 펴온 바, 오랜 긴축기조의 지속에 따른 成長減速의 관성이 이어지고 있어, 공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증가율이 계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금년 상반기의 工業生産增加率(前年同期比)은 11.6%로, 전년동기증가율(13.2%)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공업생산의 부진은 金

融緊縮基調의 유지, 작년의 공산품 재고 급증에 따른 減産調整, 공업구조 및 제품구조 조정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공산품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의 投資(국유부문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과 소비(消費財小賣額) 증가율도 각각 11.5% 내외, 12.1%로 전년동기증가율(각각 11.9%, 13.2%)을 下廻했다.

상반기중 輸出은 전년동기 대비 26.2% 증가한 808억달러로, 작년 하반기부터의 輸出回復勢가 이어졌다. 반면에 輸入은 0.1% 減少한 630억달러로, 작년 하반기부터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었다. 상반기의 貿易黑字는 17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급증의 원인으로는 작년 동기의 基準值(8.2% 減少)가 낮은 점, 수출세의 租稅還給 촉진, 공산품 재고 급증에 따른 밀어내기식 수출의 증가, 달러貨의 強勢를 의식한 달러 稼得努

力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輸出急増 추세는 공업생산·투자·소비의 상대적 부진 및 輸入減少 추세와 뚜렷이 대조되는바, 이는 최근 수출이 경제성장의 牽引車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物價上昇率은 정부가 계속 적절한 緊縮政策을 펴고 있는 데다가 전반적인 成長減速의 영향, 그리고 식료품 가격과 일부 공산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 계속 하강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상반기의 소매물가상승률(前年同期比)은 1.8%에 그쳐 6년 만에 最低値를 기록했다. 작년 3/4분기부터의 분기별 소매물가상승율(前年同期比)은 5.5%→4.6%→2.6%→1.0%로 계속 하강해 왔다.

상반기의 성장률이 9.5%로서 최근 수년간의 예에 비추어 상당히 低調했고 전반적으로 內需不振 현상이 두드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년 전체의 성장률이 작년(9.7%)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정부 또한 금년에 홍콩 인수와 제15차 黨大會라는 重大事가 있음을 감안해 경제의 安定을 重視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빠른 저하로 名目金利와 인플레이션의 차이(實質金利)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金利引下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비

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安定成長基調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미루어온 여러가지 構造調整 사업과 國有企業 개혁, 金融改革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中國, 合資 貿易商社 設立을 최초로 認可

中國 정부는 최근 韓國의 대우, 선경을 비롯한 日本, 美國 등의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 측과의 合資 貿易商社 설립을 최초로 인가하였다.

대우그룹은 上海蘭生集團과 上海蘭生大宇公司(자본금 1,205만 달러, 대우측 지분 49%)를 설립하고, 우선적으로 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후 물류 및 금융분야에도 진출하여 연매출액 50억 달러의 종합상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선경그룹은 中國의 대형 무역회사인 中國技術進出口總公司(CNTIC)와 上海浦東地區에 合資會社(자본금 약 1,200만 달러, 선경측 지분 49%)를 설립, 기술 및 설비 등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미쯔비시商社와 미국의 콘티넨탈 그레인社(Continental Grain Co.)

〈표 1〉 中國의 주요 經濟指標 추이

(단위 : 前年同期比 증가율, %)

|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상반기 |
|-------|------|------|------|------|---------|
| GDP | 13.5 | 12.6 | 10.5 | 9.7 | 9.5 |
| 공업생산 | 20.1 | 18.9 | 14.3 | 13.1 | 11.6 |
| 투자 | 22.0 | 15.8 | 11.0 | 12.5 | 11.5 내외 |
| 소비 | 11.6 | 7.8 | 10.3 | 13.0 | 12.1 |
| 수출 | 8.0 | 31.9 | 22.9 | 1.5 | 26.2 |
| 수입 | 29.0 | 11.2 | 14.2 | 5.0 | △0.1 |
| 소비자물가 | 14.7 | 24.1 | 17.1 | 8.3 | 4.1 |

는 中國 제2의 무역 회사인 東方國際集團과 東菱貿易公司(자본금 1,250만 달러, 지분 각각 27%, 22%, 51%)를 설립, 전기기계, 전자, 첨단산업제품 등의 수출입을 담당하게 된다.

금번 中國 정부의 조치는 WTO 가입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中國의 WTO 가입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무역장벽의 개선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조치는 선진국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에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바, 지난 3월에는 WTO 가입후 3년내로 외국기업의 수출입업무를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금번에 合資 무역상사를 인가함으로써,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선진국의 압력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合資 무역상사의 설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6년 9월 '中外合資對外貿易公司試驗에 관한 暫定措置'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잠정조치에 따르면 △ 합자회사의 성격은 유한책임회사이며, △ 등록자본은 1억 원 이상, △ 중국측 지분은 51% 이상 75% 미만, △ 法定代表는 중국측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조건으로 △ 전년도 영업실적 50억 달러 이상, △ 신청전 3년간 對中國 연평균 무역액 3,000만 달러 이상, 기업의 전체무역액 2억 달러 이상, △ 중국내 대표처 설치 3년 이상, △ 중국 이외의 지역에 지사나 자회사, 합자 기업 등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신청전 3년간 해

외지사의 연평균 매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설립되는 合資 무역상사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기존의 中國 무역상사와는 달리 광범위한 상품의 수출입을 취급한다는 것이다. 中國의 무역상사는 국유기업으로서 섬유, 식품, 철강 등 특정 제품의 수출입만을 담당하고 있어 합자 무역상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바, 중국 정부는 이 점을 의식, 합자 무역상사의 설립을 漸進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금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WTO 가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와 맞물려 오는 11월로 예정된 江澤民 主席의 美國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WTO 가입은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합자 무역상사의 설립조건이 까다롭고, 다수의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韓國企業 2個社가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中國, 싱가포르 證市에서 자금조달 적극 추진

최근 中國銀行과 중국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잇따른 채권 발행과 주식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년 7월 초 중국은행은 中國 國務院 산하 기업집단인 中國光大集團과 공동으로 싱가포르에서 총 2억 달러 규모의 5년만기 변동금리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중국광대집단의 朱小華會長은 이번 채권발행을 계기로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 총괄회사인 'China Everbright Investment'를 설립, 금후로도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추

진할 계획이라고 7월 6일 『日本經濟新聞』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하순에는 天津中新製藥集團會社가 중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싱가포르 증시에 액면가 0.68달러, 총발행규모 1억 株의 주식을 상장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추세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센터로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와 국내자금시장의 미비 등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중국기업들의 입장이 결합된 결과이다. 1992년 이후 중국정부는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대형 국유기업의 경영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증시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바, 특히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업들의 해외자본 조달을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中國證券監督委員會(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는 93년 홍콩과 양해각서를 교환해 현재 약 20여개의 중국기업들이 H주식으로 상장되었고, 94년 이후 뉴욕증시에 5개의 기업들이 N주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95년 11월에는 싱가포르 증시와 양해각서 교환이 이루어져 이번에 처음으로 천진중신제약집단회사가 S주식을 상장하였다. 또한 96년 12월에 호주, 동경 증시, 런던 증시와 양해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중국은 현재 6개의 주요 해외증시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세계최대 자본수입국으로 95년말 잔액 기준으로 481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제9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자금수요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자본시장의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해외증시를 통한 중국의 자금조달 노력은 금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

어 중국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싱가포르 증시 상장이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향후 5~10년동안 100여개 정도의 국유기업 주식이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臺灣, 상반기 對中投資 허가액 10.9% 감소

금년 상반기에 臺灣 經濟部 投資審議委의 승인을 얻은 對中投資額이 정부의 對中投資 억제정책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4억 9,578만달러에 그쳤다. 투자항목중 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부문 투자는 증가한 반면 발전소, 석유화학 등 대형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 최대 투자대상지역은 江蘇省이었으며 다음은 廣東省, 福建省, 山東省, 四川省의 순이었다.

대만정부는 80년대 후반까지 자국기업의 對中投資를 금지했으나 89년부터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는 間接投資를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투자 허용항목도 점차 확대해 왔다. 대만 경제부는 對中投資 허용항목을 92년에 158개, 93년에 787개, 94년에 220개씩 확대했으며 96년에는 451개의 제조업부문과 증권,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자국기업의 對中投資 급증이 국내의 産業空洞化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만경제의 對中依存度 심화가 對中協商力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는 판단하에 96년 하반기부터 신규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대만정부는 97년 1월부터 對中投資 상한규모를 3,000만달러 이하로 설정하고 사업의 노동집약도 수준, 대만경제에 미치는

〈표 2〉 대만의 대중투자 허가액 추이

(단위 : 억달러, 건)

| 구 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1~6 | 누 계 |
|-----|------|------|-------|------|------|------|----------|--------|
| 금 액 | 1.7 | 2.5 | 31.7 | 9.6 | 10.9 | 12.2 | 4.9 | 73.5 |
| 건 수 | 237 | 264 | 9,329 | 934 | 490 | 383 | 243 | 11,880 |

자료 : 『中華民國對外投資統計月報』, 臺北, 經濟部投資審議委員會, 1997년 5월호, p. 3.

영향 등을 기준으로 신규투자자에 대한 事業妥當性 평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만플라스티그룹이 福建省에 건설할 예정이던 30억 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도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향후 대만정부는 서비스부문 및 소규모 제조업에 대한 對中投資를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주요 제조업부문과 기초건설부문에 대한 투자승인은 억제 또는 금지할 방침이다. 대만정부는 금년 7월 15일부로 철도·도로·항만·비행장·전철·발전소 등 13개 항목

의 기초건설분야와 에틸렌 등 17개 항목의 제조업에 대한 對中投資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기업들이 生産基地 확보와 市場開拓 차원에서 중국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對中投資 억제책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6년 말까지 경제부의 승인을 얻은 對中投資額은 68억 5,000만달러에 불과하나, 투자금지법규를 우회한 對中 不法投資는 230억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亞洲經濟室 趙顯垓 專門研究員

/ 崔義炫·金玩根·李麟永 研究員】